

# 대화체와 낭독체의 억양구 형성에 관한 연구

박지혜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 IP generating factors and rules of read speech and dialogue in Korean

Park Jihye

(Spoken Language Information Lab., Korea University)

jh1905@hotmail.com

### 요약

본 논문에서는 발화 유형을 대화체와 낭독체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 발화 유형에서 억양구를 형성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한 문장 내에 두 개 이상의 억양구가 생성되는 경우와 접속문의 경우에는 낭독체에서 더 많은 억양구가 형성되었다. 대화체에서 더 많은 억양구가 형성되는 경우는 주로 주어 다음에 억양구가 형성되는 경우이며, 대화체 발화에서는 한 문장 내에 두 개 이상의 억양구가 형성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억양구의 형성이 음절수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이 두 가지 요인이 발화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운용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대화체와 낭독체 발화의 억양구 형성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대화체에서 더 많은 억양구가 형성되는 문장과 낭독체에서 더 많은 억양구가 형성되는 문장이 각각 존재함을 밝히고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대화체의 억양구에 관한 이전의 논의로, [7]에서는 대화체의 억양구말 경계성조를 분석하여 낭독체와 비교하였고, [8]에서는 대화체에서 경계성조의 특성이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함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문장의 종류에 따른 대화체와 낭독체의 억양구 형성 원리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실험

#### 2.1 실험 자료

조음에 문제가 없는 서울 출신 20대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을 위한 지문은 낭독체 지문 10개, 대화체 지문 10개로 총 20개이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문장은 총 10문장으로 문체에 따른 변이를 통제하

기 위하여 같은 문장을 낭독문에 한 번, 대화문에 한 번씩 포함시켰다. 즉, 지문들은 1개씩의 비교 문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의 문장들은 지문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도록 하여 비교 문장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실험에서 사용된 지문의 한 예이다.

(1) 대화체와 낭독체의 실험 지문 예

가. 대화체

A : 저 내일 조퇴 좀 하겠습니다.

B : 무슨 일 있어요?

A : 연구부의 김미라 씨가 결혼을 합니다.

B : 그래요? 나는 모르고 있었네..

나. 낭독체

1.1)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우리 회사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연구부의 김미라 씨가 결혼을 합니다. 날짜는 5월 20일 장소는 고려대 교우회관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화 유형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줄거리가 있는 지문을 사용하였으며, 발화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교할 문장은 모두 지문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 2.2 실험 방법

녹음 전에 피험자에게 지문을 제시하고 문맥을 통해 발화 유형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였다. 특히 대화체의 경우에는 발화 유형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예문을 숙지한 뒤 대본을 보지 않은 채로 발화할 수 있도록 하여 녹음하였다.

대화체는 녹음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지문을 제시하였고, 비교 문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대역은 실험자가

1) 낭독체 녹음시에는 발화 유형의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지문 앞의 일련 번호를 포함하여 발화하도록 하였다.

말아서 발화하였다. 이는 대화체를 유도할 수 있는 실험자와의 발화가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낭독체는 지문을 주고 읽도록 하였으며, 앞서 실험한 대화체 발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지문 앞의 일련 번호를 먼저 읽도록 하였다.

녹음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음성언어정보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방향 마이크(오스트리아 AKG사의 C420 B-lock)를 사용하였다.

### 2.3 자료의 분석

음향 자료의 분석은 윈도우 환경에서 운영되는 SCICON사의 PCQuirer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un(1993)의 방법을 따라 억양 곡선과 청취 판단을 근거로 하여 억양구(IP)를 운율 단위로 분석하였다.

### 3. 실험 결과

본고에서는 대화체와 낭독체의 억양구 생성을 문장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평서문만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2]에 따라 문장을 먼저 단문과 복문으로 구분한 뒤, 복문은 접속문과 포유문으로 나누고 내포된 절의 쓰임에 따라 주어절, 목적절, 서술절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3.1. 단문

낭독체 발화는 단문인 실험 예문에서 억양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화체 발화는 주어가 구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억양구가 생성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대화체 발화에서는 '연구부의 김미라씨가'와 '결혼을 합니다' 사이에 억양구가 생성되어 억양구의 끝부분에 어말 장음화와 경계 성조를 나타내고 있다. 낭독체 발화에서는 억양구 대신 강세구가 생성되어 대화체 발화와는 달리 어말 장음화와 억양구 경계 성조를 나타내지 않았다.

단문에서 구로 구성된 주어 다음에 억양구가 생성되는 경우는 대화체 발화에서 35% 발견되었다. 낭독체 발화에서는 억양구가 생성되는 경우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예문에서는 모두 강세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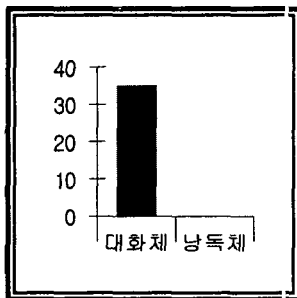


표1. 구로 구성된 주어 다음의 억양구 생성 빈도 (단위:%)

#### 3.2. 복문

##### 3.2.1. 접속문

복문 중 접속문의 발화에서는 두 문장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억양구가 생성되었다.

(예문) 위로 언니가 있고, (//)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는 간호원이고, (//) 남동생은 군인입니다.

'위로 언니가 있고'와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는 간호원이고'와 '남동생은 군인입니다' 사이에 각각 억양구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낭독체에서 40%, 대화체에서 10%로 나타나 낭독체에서 더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발화 유형에 따른 접속문에서의 억양구 생성 빈도는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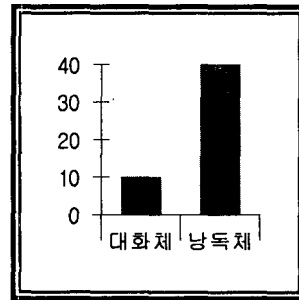


표2. 접속문의 억양구 생성 빈도(단위:%)

##### 3.2.2. 포유문

포유문에서는 내포된 절의 앞이나 뒤에 억양구가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3.2.2.1. 주어절

낭독체·대화체 발화 모두 주어절 다음에 억양구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대화체에서 33%, 낭독체에서 5%로 대화체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발화 유형에 따른 주어절 다음의 억양구 생성 빈도는 <표 3>과 같다.

(예문) 우리가 재벌이 되기는 (//) 불가능하다.

예문에서 '우리가 재벌이 되기는'이 내포된 주어절이며, 억양구는 내포절의 뒷부분인 주어절과 서술어인 '불가능하다' 사이에 생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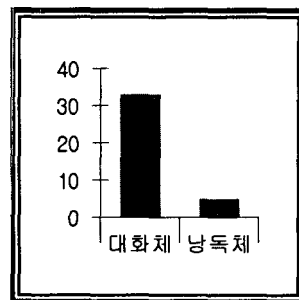


표3. 주어절 다음의 억양구 생성 빈도(단위:%)

###### 3.2.2.2. 목적절

주어와 목적절 사이에 억양구 경계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발화 유형에 따른 억양구 생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문) 인어는 (//)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 물었다.

예문에서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 부분이 내포된 목

적절이며, 절의 앞부분인 주어 '민아는'과 목적절 사이에 억양구 경계가 생성되었다.

(예문) 민아는 (//)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 (//) 물었다.

낭독체 발화에서는 목적어절과 서술어 사이인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과 '물었다' 사이에 억양구 경계가 생성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화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낭독체에서만 15% 나타났다.

목적어절과 서술어 사이의 억양구 경계 생성 빈도는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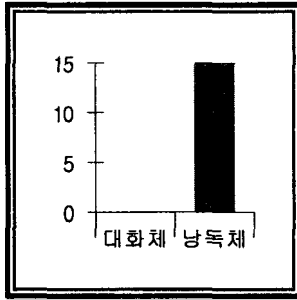


표4. 목적어절 다음의 억양구 생성 빈도(단위:%)

### 3.2.2.3. 서술절

서술절의 앞에 억양구가 생성되었는데, 이는 대화체에서 60%, 낭독체에서 10%로 대화체 발화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발화 유형에 따른 서술절 앞의 억양구 생성 빈도는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예문) 이 가게는 (//) 물건의 가격이 낮다.

예문에서 서술절은 '물건의 가격이 낮다'이며, 주어인 '이 가게는'과 서술절 사이인 절의 앞부분에 억양구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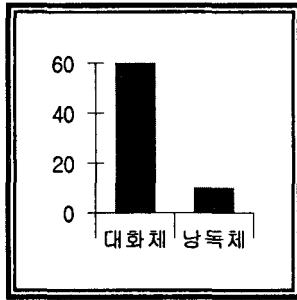


표5. 서술절 앞의 억양구 생성 빈도(단위:%)

### 3.2.2.4. 보어절

보어절은 대부분 절의 앞부분에 억양구가 생성되었으며, 보어절과 서술어 사이에 억양구가 생성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발화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예문) 둘이 한 번 만난 것이 (//) 연애한다는 얘기가 되었다.

예문에서 보어절은 '연애한다는 얘기가' 부분이며, 주어 '둘이 한 번 만난 것이'와 보어의 사이인 절의 앞부분에 억양구가 형성되었다. 보어절과 서술어 '되었다' 사이인 보어절의 뒷부분에 억양구가 형성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 3.2.2.5. 관형절

관형절의 경우는 다른 절과는 달리 내포되는 절의 뒷부분에 억양구가 나타나지 않고,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뒤에 억양구가 생성되었다.

(예문) 어제 우리 집에 온 여인은 (//) 매우 아름다웠다.

예문에서 관형절 부분은 '어제 우리 집에 왔던'까지 이나,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인 '여인'과 서술어인 '매우 아름다웠다' 사이에서 억양구가 형성되었다. 이는 대화체 발화에서 60%, 낭독체 발화에서 40%로 대화체 발화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뒤의 억양구 생성 빈도는 <표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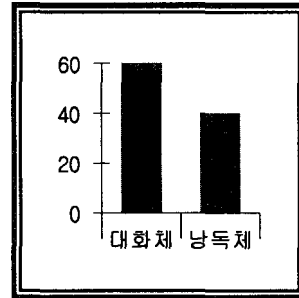


표6.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뒤의 억양구 생성 빈도(단위:%)

### 3.2.2.6. 부사절

내포된 부사절의 앞부분에서 억양구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발화 유형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문) 오늘 하늘은 (//)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예문에서 부사절은 '구름 한 점 없이'이며, 주어 '하늘은'과 부사절 사이인 절의 앞부분에서 억양구가 형성되었다.

(예문) 오늘 하늘은 (//) 구름 한 점 없이 (//) 맑아요.

부사절의 뒷부분인 '구름 한 점 없이'와 서술어 '맑아요' 사이에서 억양구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낭독체 발화에서만 15% 나타나고 대화체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 문장에서 대화체 발화는 하나의 억양구만을 형성한 반면 낭독체 발화는 2개의 억양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나의 억양구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와 부사절 사이에 억양구가 형성되며, 낭독체 발화에서 2개의 억양구가 생성되는 경우는 반드시 주어와 부사절 사이에 위치하는 억양구 이외에 부사절과 서술어 사이의 억양구가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발화 유형에 따른 부사절과 서술어 사이의 억양구 생성 빈도는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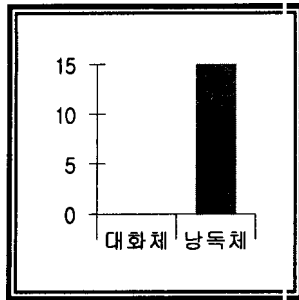


표7. 부사절과 서술어 사이의 억양구 생성 빈도(단위:%)

#### 4. 대화체와 낭독체의 억양구 형성 원리

대화체와 낭독체에서의 억양구 형성을 비교해 볼 때, 대화체에서 억양구가 평균 23% 정도 더 많이 실현되었다. 낭독체보다 대화체에서 억양구가 더 많이 형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였다.

(예문) 연구부의 김미라씨가 (//)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재벌이 되기는 (//) 불가능하다.

이 가게는 (//) 물건의 가격이 낮다.

어제 우리 집에 온 여인은 (//) 매우 아름다웠다.

오늘 하늘은 (//)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이 예문들은 모두 주어 다음에 억양구가 형성되었으며,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억양구 경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실험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낭독체에서 억양구가 더 많이 형성되는 예문은 다음과 같았다.

(예문)위로 언니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는 간호원이고, (//) 남동생은 군인입니다.

민아는 (//)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 (//) 물랐다.

오늘 하늘은 (//) 구름 한 점 없이 (//) 맑아요.

위의 예문 중 '위로 언니가 있고, (//)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와 '언니는 간호원이고, (//) 남동생은 군인입니다.'와 같이 접속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억양구가 형성된 경우로,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에 억양구가 형성되었다.

이 예문들을 살펴보면, 억양구 크기의 비대칭성을 감소하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예문) '민아는 (//)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 물랐다.'와 같이 목적절 앞에 나타나는 억양구 경계는 대화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지만, (예문) '민아는 (//)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 (//) 물랐다.'와 같이 목적절과 서술어 사이에 나타나는 억양구 경계는 낭독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어와 목적절 사이의 억양구 경계가 1차적이며, 목적절과 서술어 사이의 경계는 2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주어와 목적절 사이의 억양구 경계가 먼저 생성된 뒤, 낭독체에서는 억양구 간의 음절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하여 목적절과 서술어 사이에 억양구 경계가 더 생성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예문) '오늘 하늘은 (//) 구름 한 점 없이 (//) 맑아요.'에서도 주어와 부사절 사이의 억양구 경계만 존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사절과 서술어 사이의 억양구 경계만 존재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사절과 서술어 사이의 억양구 경계는 주어와 부사절 사

이의 억양구 경계 이후에 형성된 것이며 이는 억양구 간의 음절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발화시에 운율구를 형성하는 주요인으로 음절수와 통사 구조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우선 순위를 적용하게 된다. 낭독체는 음절수 요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대화체는 문장을 크게 주부와 술부로 나누며 음절수보다는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화체와 낭독체가 공통적으로 운율구를 가지는 (예문) '민아는 (//) 영미가 유명한 음악가임을 물랐다.'나 (예문) '오늘 하늘은 (//)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와 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력을 획득할 수 있다.

#### 5. 결론

실험 결과, 억양구의 형성이 음절수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 두 가지 요인이 발화 유형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적용된다는 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낭독체 발화의 경우는 문장의 구조보다는 음절수에 우선 순위를 두어 억양구를 형성하는 반면, 대화체 발화는 문장의 구조에 우선하여 억양구를 형성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 (R01-1999-00229)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참고 문헌

1. 박병선, "한국어 구어의 어휘 사용 특성-코퍼스를 이용한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2. 박영순, 「현대한국어통사론」. 집문당, 1993
3. 성철재, "한국어 대화체 음성의 운율 분석-낭독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글」 239, 1998.
4.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 : 음성학·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2000.
5. 신지영·김민정·김기호, "한국어 강세구의 음성적 실현 양상과 재음절화." 「언어」 23.3, 2000.
6.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7. 한선희, 오미라, "한국어 억양구의 경계론." 음성과학 제 5권 2호, 1999.
8. 한선희, "대화체 억양구말 형태소의 경계성조 연구." 음성과학 제 7권 4호, 2000.
9. Jun, Sun-Ah,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 1993.